

<2014.12.11.~2014.12.15.>

全北日報

2014년 12월 12일 (금)

지역 10면

## 고창군, 50억 들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지상 2층 규모 2017년 완공 계획

고창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관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 김인호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

지역 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필요성, 주요기능, 입지후보지 선정,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기타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속가능한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규모로 관리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지역주민 교육과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장, 국내외 주요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장을 비롯하여 홍보 및 판매실, 관리사무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박우정 군수는 "우리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전·발전·지원계획의 전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청정하고 친자연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한 거점시설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을 위해 2015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17년까지 관리센터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창=김성규기자 skk407@

170 X 78 mm

전북도민일보

2014년 12월 12일 (금)

지역 10면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한다

郡, 기본구상 최종 용역보고  
고창읍 둔산리 일원에 설치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가 고창읍 둔산리 일원에 건립된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11일 상황실에서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 김인호 부군수 및 실과소장, 관계공무원 등 30

여명이 참석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의 필요성, 주요기능, 입지후보지 선정,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등 관리센터 운영 전반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다. 군은 7~8여곳의 입지 예정지를 분석, 최종적으로 둔산리 일원에 건립키로 결정하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속가능한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규모로 관리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관리센터에는 지역주민 교육과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장과 국내외 주요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장, 홍

보 및 판매실, 관리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우정 군수는 "우리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전·발전·지원계획의 전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거점시설이 필요하다"며 "관리센터 건립 시 청정하고 친자연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고창군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을 위해 2015년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2017년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161 X 89 mm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11일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 고창, 생물권보전 관리센터 건립 추진

###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 열려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군은 11일 박우정 군수와 김인호 부군수를 비롯해 실과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관리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주요기능, 입지후보지 선정,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기타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속 가능한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 지상 2층 규모의 관리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지역주민 교육과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장, 국내외 주요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장을 비롯해 홍보 및 판매실, 관리사무실 등이다.

박우정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전·발전·지원계획의 전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시설을 마련하겠다"며 "관리센터 건립 시 청정하고 친자연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박용관 기자(sco0747@)





고창군이 11일 상황실에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 관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첫발’

타당성조사·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 50억원 투입 2017년 준공 예정

고창군이 11일 상황실에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 관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 김인호 부군수 및 실과소장,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필요성, 주요기능, 입지후보지 선정,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기타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속가능한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 지상 2층 규모로 관리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지역주민 교육과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장, 국내외 주요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장을 비롯 홍보 및 판매실, 관리사무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박우정 군수는 “우리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전·발전·지원계획의 전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마련해 줄 것과 관리센터 건립시 청정하고 친자연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을 위해 내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17년까지 관리센터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익희기자/syhee6311@hanmail.net



고창군은 11일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한다

타당성 조사 ·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 50억 투자 2017년 준공 예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11일 상황실에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 관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 김인호 부군수, 실과소장,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의 필요성, 주요기능, 후보지 선정,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기타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속가능한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규모로 관리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지역주민 교육과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장, 국내외 주요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장을 비롯하여 홍보 및 판매실, 관리사무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박우정 군수는 "우리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전·발전·지원계획의 전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마련해 줄 것과 관리센터 건립시 청정하고 친자연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을 위해 2015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17년까지 관리센터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168 X 164 mm



## “친자연적 이미지 최대 반영해야”

### 고창군수 생물권 관리센터 최종용역보고회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11일 상황실에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 관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 김인호 부군수 및 실과소장,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필요성, 주요기능, 입

지후보지 선정,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기타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속가능한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규모로 관리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지역주민 교육과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장, 국내외 주요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장

을 비롯하여 홍보 및 판매실, 관리사무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박우정 군수는 “우리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전·발전·지원계획의 전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마련해 줄 것과 관리센터 건립 시 청정하고 친자연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을 위해 2015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17년까지 관리센터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창=임동갑기자

157 X 86 mm

## 전라매일

2014년 12월 12일 (금)  
지역 09면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보고회 개최

고창군은 지난 11일 상황실에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 관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 김인호 부군수 및 실과소장,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필요

성, 주요기능, 입지후보지 선정,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기타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속가능한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50억을 투자해 지상 2층 규모로 관리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지역주민 교육과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장, 국내·외 주요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장을 비롯해 홍보 및 판매실, 관리사무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박동현 기자

115 X 58 mm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보고회… 입지후보지 선정 등 논의

고창군은 11일 상황실에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 관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 김인호 부군수 및 실과소장,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필요성, 주요기능, 입지후보지 선정,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기타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속가능한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50억을 투자해 지상 2층 규모로 관리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지역주민 교육과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장, 국내외 주요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장을 비롯해 홍보 및 판매실, 관리사무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박우정 군수는 “우리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전·발전·지원계획의 전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마련해 줄 것과 관리센터 건립 시 청정하고 친자연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종성 기자  
kjs56730@daum.net

107 X 102 mm

## 고창생물권보전 관리센터 건립 탄력

고창군,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 2017년 준공 예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11일 상황실에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 관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 김인호 부군수 및 실과소장,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

지역 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필요성, 주요기능, 입지후보지 선정,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기타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속가능한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규모로 관리센터를 신축할 계획이

다. 주요시설은 지역주민 교육과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장, 국내외 주요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장을 비롯하여 홍보 및 판매실, 관리사무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박우정 군수는 “우리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전·발전·지원계획의 전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마련해 줄 것과 관리센터 건립 시 청정하고 친자연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이림 기자

175 X 65 mm

##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14-12-11 13:53:31]

【고창=뉴시스】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군은 11일 박우정 군수와 김인호 부군수를 비롯해 실과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

보고회는 관리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주요기능, 입지후보지 선정,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기타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속 가능한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 지상 2층 규모의 관리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지역주민 교육과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장, 국내외 주요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장을 비롯해 홍보 및 판매실, 관리사무실 등이다.

박우정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전·발전·지원계획의 전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시설을 마련하겠다"며 "관리센터 건립 시 청정하고 친자연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seun6685@newsis.com





전국 > 전북

## 고창에 2017년까지 생물권보전지역(BR) 관리센터 건립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2014.12.11 14:47:28 송고



전북 고창군은 11일 박우정 군수, 김인호 부군수 및 실과소장,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 지역 BR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2014.12.11/뉴스1 © News1 박

제철 기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이하 BR)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에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관리센터가 들어선다.

고창군은 11일 박우정 군수, 김인호 부군수 및 실과소장,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BR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관리센터 규모를 비롯해 위치 및 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용역보고에 따르면 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속가능한 학습장으로 만들



기 위해 총사업비 50억을 투입, 지상 2층 규모로 관리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시설로는 지역주민 교육과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장과 국내외 주요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장, 홍보 및 판매실, 관리사무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BR센터가 들어설 위치는 고인돌박물관 부근과 고인돌교차로 부근,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뒷편 등 3곳이 후보지로 올랐지만 접근성과 고창 이미지, 경제성, 지역기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고인돌교차로 부근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우정 군수는 “우리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전·발전·지원계획의 전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마련해 줄 것”과 “관리센터 건립 시 청정하고 친자연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군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을 위해 내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17년까지 관리센터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 인쇄하기

+ 다운로드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탄력

용역 최종보고회서 입지후보지 선정 등 검토

(아시아뉴스통신=신홍관 기자)

뉴스일자: 2014년12월11일 14시00분



박우정 전북 고창군수가 11일 열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업무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창군)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종합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고창군은 관리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11일 개최해 입지후보지 선정 등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했다.

박우정 군수, 김인호 부군수 및 실과소장,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필요성, 주요기능, 입지후보지 선정,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는 다음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속가능한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50억을 투입 지상 2층 규모로 관리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지역주민 교육과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장, 국내외 주요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장을 비롯 홍보 및 판매실, 관리사무실 등을 갖춘다.

박우정 군수는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보전·발전·지원계획의 전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마련하고, 청정하고 친자연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biz04@hanmail.net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09 (주)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 민선6기 고창군, 조직 개편 '윤곽'

문화관광과→산림공원과 이관  
살기좋은 고창 만들기과 폐지  
농식품산업팀·FTA팀 신설  
농기센터 귀농귀촌 TF팀 확대

민선6기 고창군 조직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전략과와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가 폐지되고 산림축산과가 산림공원과와 축산과로 분리되면서 생물권보전사업소가 신설 되는 등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9일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밝힌 조직진단용

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우선 기획예산실은 정책기획담당을 기획담당으로 법무감사담당을 감사담당으로 조정하고 살고과 교육지원업무를 이관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복지과로 행정지원과는 영상정보TF를 신설해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이어 민원봉사과는 허가업무를 각 담당부서로 이관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팀을 신설해 종합민원과로 변경되며 문화관광과는 선운산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공원과로 이관하고 관광산업 팀과 문화시설 팀을 신설한다.

아울러 농업진흥과는 뉴타운 조성담당을 폐지하고 지역전략과의 마케팅을 이관하여

유통시설 업무와 통합하는 한편 농식품산업팀과 FTA팀을 신설한다.

건설도시과는 도시개발을 도시계획으로 변경하고 살고과의 지역개발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과는 산림축산과로 우선 이 과는 산림공원과와 축산과로 분리되며 도시공원 팀과 가축방역 팀을 신설하는 등 도시공원과 녹지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축산을 진흥시키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밖에도 재난안전과는 비상대책 팀을 신설하면서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위생사업소는 고창전지역을 지속가능한 청

정지역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기능과 업무를 조정한 환경위생과로 개편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 TF를 팀으로 확대하고 복분자연구 담장을 작물재배 팀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농기계 팀을 신설해 현행대로 준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6기의 공약 및 역점사업을 추진할 조직(안)으로 개편방향을 설정했다"며 "유관업무의 통합 및 이관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창=신동일기자·sd@

243 X 92 mm



##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2017년까지 건립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4-12-14 11:00

(고창=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 전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관리센터를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센터는 50억원이 투입돼 고창읍 도산리 일대에 건립되며 주민 교육을 위한 교육장, 대형 회의실, 홍보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고창군은 내년 초까지 부지 면적과 건물 규모 등을 확정하고 공사에 들어간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센터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거점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in100@yna.co.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 [오늘의 HOT] 엘비스 프레슬리 전시회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7299964>

인쇄하기 취소